분해문학은 작품 속 핵심요소 단위로 책을 분해해서 재조합하는 것으로, 문학작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형식이나 문체가 특징적인 작품을 골라 줄거리를 압축시키고 소설의 핵심인 구조를 부각시키는 작업이며, 이렇게 탄생한 책은 소설의 성격을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오브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번 작업의 대상으로 선정한 조르주 페렉의 소설 <어느 미술애호가의 방>은 절반 이상이 ’길고 반복적인 그림 설명과 묘사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페렉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해 익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그림들은 알고보니 다 허구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책의 끝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. 분해문학은 <어느 미술애호가의 방> 속 이 익숙한 허구의 이미지들을 기존의 명화에서 요소들을 추려 텍스트에 맞춰 새로운 허구의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각화하고, 이것들은 경매 현장이라는 작품의 배경에 따라 경매 목록으로 만들어집니다.